

나주, 풍요로운 농축생명산업 ‘메카’ 도약



나주시는 민선 8기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농축 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존중받는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농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농축산식품 국내외 판로 개척, 고품질 나주쌀·나주배 생산·유통 기반 확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 지향적 산업화 전략과 철동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제로화 등을 실현하며 나주농업의 위상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천년이음 나주배’



나주쌀 브랜드



온라인 소평물 ‘나주물’

△다양한 직불금 지원…‘생활 안정형 농정’ 구현
농촌에서 나고 성장한 농부의 아들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윤병태 시장의 농정 철학은 명확하다. “농업인이 잘 살아야 지역도, 국가도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다. 농지 면적이나 지역(진흥, 비진흥)에 따라 1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지원한다.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는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3만2000여명에게 622억여원의 공익직불금을 지원했다.

논에서 쌀농사 대신 밀, 보리, 조식료, 두류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전략작물 직불금은 2023년부터 2년 동안 4602명에게 384억여원이 지급됐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에 연 60만원씩 지원되는 ‘농어민공익수당’도 있다. 시는 2023년 86억3700만원, 2024년 87억8100만원, 2025년 88억3000만원 등 3년 동안 4만4000여명에게 모두 262억500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했다.

△자연재해·가격변동 대응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은 자연재해와 가격변동에 취약한 산업이다. 나주시는 이에 대응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농작물 재해보험료 500억여원(2만3499명)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22억여원(2만4435명)을 지원했다. 또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위해 2023년부터 2년 동안 벼 경영안정자금 110억여원(2만1386명)과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2만401t) 472억여원 지원 등 다양한 수당과 지원금·보조금을 지원했다.

△고품질 농축산물 육성…브랜드 경쟁력 강화
나주시는 ‘맛과 품질로 승부하는 나주쌀’ 브랜드 강화를 위해 체계적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했다. 친환경·고품질 재배 기술 보급,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통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통합 마케팅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통합 RPC(미국종합처리장)와 산지유통센터 확충,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했다.

나주시장이 보증하는 프리미엄 나주배인 ‘천년이음배’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재배부터 유통까지 엄격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제도 구축, 나주배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 가격 안정을 위해 포장제 구입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직불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최대 한우 주산지로 명품 한우 육성 체계를 구축해 지난 9월 프리미엄 한우브랜드인 ‘나주 들애친한우’ 출시 선포식을 가졌다. 들애친한우는 나주축협 TMR사료공장에서 나주배 부산물을 첨가한 차별화된 사료를 급여하는 등 최고의 품질을 보증한다.

시는 또 지난 2023년 지역 대표 농산물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별로 농협과 연계한 대표 농산물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노안면 마나리, 세지면 멜론을 집중 육성 중이며, 남평-팔기, 왕곡-참외, 문평-양파, 다시-보리쌀, 금천-단호박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농축산식품 수출…나주배 글로벌 브랜드화
민선 8기 출범 후 미국, 호주, 베트남,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등 8개국 현지 유통업체 13곳과 총 4470만 달러 규



윤병태 나주시장(오른쪽)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업체인 에이스푸드 이상호 대표와 1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나주배 판촉 행사를 했다.

수당 확대·농산물 품질 고급화 농민 소득안정망 구축 국내외 판로 확대·인력난 해소…온라인 판매망 강화 윤병태 시장 “청년·여성 주도 ‘스마트 혁신농업’ 선도”

모의 농축산식품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출 시장 다변화에 큰 성과를 거뒀다. 나주배, 쌀, 배, 참, 감, 버섯 등 다양한 농산물의 수출 물량을 확대해 가며 지역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넓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나주배의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EU, 동남아 등 수출 확대를 추진했고, 고품질 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농가를 확대해 신뢰도 높은 농산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일손 부족 해소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계절적 농번기에 맞춰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도입해 농가의 수확·재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2명에서 2024년 600명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8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과수농가와 시설원에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작업의 적기 수행을 가능케 했다.

△농축부산물 상품화·푸드테크 연구센터 건립

2026년 완공 예정인 나주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축산, 식품 가공 부산물 등 상품 가치가 낮은 자원에 새로운 기술을 더해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105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나주 일반산단에 건립하고 있다. 이 센터는 ‘못난이 농축산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음료, 패스트푸드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푸드업사이클링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산업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약 11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0여명의 고용효과와 165억원 이상의 매출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철동 방역 ‘가축 전염병 제로화’…3년째 청정지역

나주시는 철저한 가축 방역 정책을 통해 AI·구제 등 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 소득 지원, 축산 차량 이동통제, 예찰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고, 예방백신 접종과 교육을 병행해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였다. 또 재난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2023~2024년 동절기부터 최근까지 나주시에서는 가축 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 성과로 도내 22개 시·군 가축방역위생 시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농촌 정주 환경개선,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나주시가 추진해 온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 마을회관, 도로·상하수도 정비,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마을 경관 정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촌 생활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아울러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에 힘써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지원, 스마트팜 교육, 창업보육과 판로 연계사업을 강화했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가사 돌봄 지원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강화를 이끌었다.

창업 지원, 농업 교육·컨설팅,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으로 청년과 여성을 미래 농업 인재로 육성해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져 가고 있다.

△나주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망 ‘나주물’

‘나주물’(najumall.kr)은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쇼핑몰이다. 나주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특산물, 공산품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소비자들 이 안방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나주물’에서는 나주배, 쌀, 한우, 흙 등을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과 시즌별 농축산물 꾸러미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수한 상품을 연중 무료 배송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주물은 2024년 연 매출 11억원을 달성하면서 1년 만에 250% 성장했다. 2025년에는 매출 목표를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지자체 농산물 플랫폼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전남지방우정청과의 협약을 통해 ‘우체국쇼핑’ 내 나주관을 개설해 추가 매출 15억원을 달성, 총 30억원 규모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2년 연속 농정업무 평가 ‘최우수상’

농생명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자 했던 나주시의 이 같은 노력은 전남도가 실시한 농정업무 종합 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농업정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 나주배 수출 확대, 가축방역 선제 대응, 고품질 쌀 유통 체계 확립 등 다방면의 성과의 결과이다. 또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푸드업사이클링 추진 등 미래지향적 농업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나주시의 농업정책이 실효성과 혁신성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업은 이제 단순한 생산을 넘어 수출·가공·환경·문화가 아우러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농축생명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과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스마트 혁신 농업’으로 ‘농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남도의 젖줄’ 영산강 유역에 드넓게 펼쳐진 나주평야. 나주시 ‘농도 전남’의 대표 지역임을 보여준다.